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비교

조승연^a · 이은주^{b,§}

^a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언어치료전공, ^b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 교신저자

이은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사범관 509호
e-mail: slplee@dankook.ac.kr
tel.: 031-8005-3818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들과 일반아동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한국어능력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다문화가정 3~4세 아동의 어머니 중에서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 9명과 일반아동 어머니 12명을 대상으로 조음음운능력(단어반응 자음정확도, 연결발화 자음정확도, 명료도), 음운인식능력, 표현어휘력, 그리고 구문의미이해력을 평가한 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다문화가정의 두 어머니 집단 간 조음음운능력, 음운인식능력, 구문의미 이해력, 표현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모든 과제에서 나타난 두 어머니 집단의 평균점수는 취학 전 일반아동의 수준이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조음음운능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414-423.

핵심어: 다문화가정 어머니, 조음음운능력, 음운인식능력, 표현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나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속의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은 가정 형성 유형의 하나가 되었다(배소영 외, 2009).

2011년, 여성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수는 188,580이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51,15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에서 취학 전 6세 이하의 자녀는 93,537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행정안전부, 2011). 이는 일 년 전인 2010년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와 비교해 봤을 때 약 3천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 뒤에는 읍이나 면 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안원석, 2007).

그러나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정체성 혼란뿐 아니라 학교 부적응의 문제, 언어지체나 학습의 결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서종남, 2010). 또한 또래들로부터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외모로 인한 편견이 가장 많지만, 의사소통 문제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2005)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 중 20.7%가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라고 조사되어졌다.

Kovas et al. (2005)은 환경과 유전적 요인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동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효정·이귀옥·박혜원(2004), 이지연·곽금주(2008) 등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변수들이 아동의 초기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낮은 언어능력의 원인 중 환경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며, 다수의 연구

(권미지, 2011; 김영란 · 김영태, 2011; 김화수 · 이은경, 2010; 오소정 · 김영태 · 김영란, 2009; 우현경 외, 2009; 황상심 · 정옥란, 2008)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이 일반 아동보다 낮은 수준이며, 소득 수준이나 SES,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같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소정 · 김영태 · 김영란(2009)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은 어머니 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중에서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아동의 언어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모국어가 아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에 의한 언어능력의 차이는 언어발달이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아기에 더욱 두드러지며 나이를 먹으면서 교육기관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수행 능력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우현경 외, 2009).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서 조음음운능력도 지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상희, 2009; 류현주 외, 2008; 황상심 · 김화수, 2008). 류현주 외(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일반아동의 음운 변동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자음정확도가 낮고 오류가 더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상희(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산출에 대한 종단 연구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발달적 오류패턴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 또한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한국어 발음에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현욱 · 황보명(2009)에 따르면 『우리말 조음 · 음운평가(U-TAP)』(김영태 · 신문자, 2004)로 검사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음정확도가 94.98%로 생활연령이 5세인 일반 여아의 평균에서 -1SD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정(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이주 여성은 평음, 경음, 격음의 구분을 못하고, 이중 모음, 받침 등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였다. 배소영 외(2009)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들은 부정확한 발음을 보이며, 특히 평음과 격음, 경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류현주 외(2008)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긴장음화와 이완음화의 오류를 많이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낮은 조음음운능력은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교육기관에 참여하거나 또래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일반

가정 아동과 조음음운능력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조음음운능력의 발달이 늦어지는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해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어머니의 언어능력이나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조음음운능력 또한 어머니의 조음음운능력이나 언어능력 또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류현주 외(2008)는 어머니의 조음음운능력이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으며, 최현욱 · 황보명(2009), 박상희(2009) 등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이 어머니의 언어능력이나 조음음운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조음음운능력뿐 아니라 조음음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음운인식능력, 표현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조음음운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정 중에서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어머니 9명, 일반아동의 어머니 12명으로, 총 21명이었다. 아동의 주 양육자이고 아동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인지적 · 정서적 · 행동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으며 국적은 베트남이었다(<표 - 1>).

어머니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아동 선별이 이루어졌는데, 아동 선별 조건은 만 3~4세로 정서 · 행동 · 지적 장애가 없고, 청력이나 조음기관에 이상이 없으며 언어연령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아동이었다. 『아동

<표 - 1> 대상자 배경 정보

집단	아동					어머니						
	평균 생활연령	평균 언어연령	연령대			학력			거주년수			
			20대	30대	40대	초졸	중졸	고졸	대졸	3년~ 5년미만	5년~ 7년미만	7년이상
장애 (n=9)	3:8	3:0	3	6	0	1	6	1	1	3	3	3
일반 (n=12)	3:8	3:2	7	3	2	1	6	3	2	3	3	6

*언어 연령: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PRES)의 수용언어능력 검사 결과 수용언어 등가 연령

용 발음평가(APAC)』(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을 실시하여 점수가 -1.5SD 이하인 아동은 조음음운장애 집단, -1SD 이상인 아동은 일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 도구

가. 선별 도구

먼저 가정환경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선별을 위한 언어능력 검사도구는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PRES)』(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4) 중에서 수용언어 발달 척도를 사용했으며 기질적인 문제로 조음음운장애를 보이는 아동을 배제하기 위해 구강구조를 살피고, AMR 및 SMR 등의 조음기관 기능검사를 실시했다. 조음음운능력은 『아동용 발음평가(APAC)』(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를 사용하였다.

나. 본 검사 도구

조음음운능력 검사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검사도구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평균 조음음운능력이 취학전 아동 수준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최현옥·황보명, 2009)를 고려하여 『아동용 발음평가(APAC)』(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를 실시하였다. 음운인식능력 평가도구는 비공식 검사 도구로 김애화(2007)의 ‘포괄적인 음운인식검사 도구 예시’에서 제시된 검사 도구의 예시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음절 수준의 문항이 8문제, 초성-라임 수준의 문항이 6문제, 음절제-종성 수준의 문항이 6문제, 음소 수준의 문항

이 10문제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료도 평가를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이민 와서 적응이 어려웠던 점, 의사소통에서의 문제점, 한국어말 공부 방법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자발화 샘플을 수집하였다. 자발화 명료도를 통해 발화를 이해한 정도뿐 아니라 모음정확도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문장이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를 사용하였으며, 표현어휘력 평가를 위해서는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김영태 외, 2009) 중에서 표현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3~4세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선별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여 선별 검사 및 본 검사를 시행하였다. 총 29가정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연령이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친 경우,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이 -1SD정도라 어느 집단에 속할 수 없는 경우, 수용언어능력이 생활연령에 비해 1세 이상 지체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21 가정 아동의 어머니들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결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의 가정환경이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부록 - 1>).

4. 통계적 검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

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간에 한국어능력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방법인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5. 신뢰도

검사자간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조음음운장애아동 2가정, 일반아동 3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의 단어반응 자음정확도 및 어머니의 단어반응 자음정확도와 연결 발화 자음정확도, 자발화 명료도 평가 내용을 연구자와 1급 언어치료사가 독립적으로 전사한 후, 전사일치도를 비교하였다. 단어반응과 연결발화는 음소 단위로 분석하고 명료도는 어절 단위로 분석한 후 일치한 수를 전체 수에 대한 비율로 산출했다. 전체 신뢰도는 95.69%로 산출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집단 간 조음음운능력 비교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들과 일반아동 어머니들의 단어반응 자음정확도 검사에서 산출된 원점수를 언어연령으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일반아동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3세와 4세 수준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3세 이하 수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2> 집단에 따른 조음음운능력(단어반응 자음정확도)의 언어연령 대비 분포율

분류	(단위: %)				
	2세 수준	2~3세 수준	3세 수준	3~4세 수준	4세 수준
일반 (n=12)	0.00	16.66 (2명)	41.66 (5명)	0.00	41.66 (5명)
장애 (n=9)	22.22 (2명)	33.33 (3명)	44.44 (4명)	0.00	0.00

두 집단 간 조음음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을 실시한 결과, 단어반응 자음정확도($U=14.000, p<.01$), 연결발화 자음정확도($U=4.500, p<.001$), 자발화 명료도($U=6.500,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정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집단에 따른 조음음운능력의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분류	집단	중앙값	범위	<i>U</i>	<i>Z</i>	<i>p</i>
단어반응	일반(n=12)	91.00	84~97	14.000	-2.854	.004**
	장애(n=9)	84.00	77~93			
연결발화	일반(n=12)	93.00	87~96	4.500	-3.541	.000***
	장애(n=9)	87.00	77~88			
자발화	일반(n=12)	96.00	92~98	6.500	-3.393	.001**
	장애(n=9)	84.00	70~95			

** $p<.01$, *** $p<.001$

2.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간 음운인식능력 비교

음절 단위에서는 두 집단 모두 60%이상의 높은 수행을 보였으나, 초성-라임, 음절체-종성, 음소 단위에서는 두 집단 어머니들의 수행률은 평균 50%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모든 단위에서 일반아동의 어머니 집단이 높은 수행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음운인식 발달 단계와 비교해 볼 때 두 집단의 어머니 평균은 모두 취학전 아동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음운인식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음운인식의 차이($U=9.500,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인식 단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단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음소 단위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U=13.500, p<.01$)를 보였다.

<표-4> 집단에 따른 음운인식능력의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단위	집단	중앙값	범위	<i>U</i>	<i>Z</i>	<i>p</i>
음절	일반(n=12)	7.00	5~8	24.500	-2.158	.031*
	장애(n=9)	5.00	4~7			
초성-라임	일반(n=12)	3.00	1~5	20.500	-2.446	.014*
	장애(n=9)	2.00	0~3			
음절체-종성	일반(n=12)	3.00	0~5	25.000	-2.165	.030*
	장애(n=9)	2.00	1~3			
음소	일반(n=12)	5.00	3~7	13.500	-2.936	.003**
	장애(n=9)	3.00	0~5			
음운인식	일반(n=12)	17.50	12~21	9.500	-3.184	.001**
	장애(n=9)	10.00	8~16			

* $p<.05$, ** $p<.01$

<표 - 5> 집단에 따른 표현어휘력과 구문의미이해력의 언어연령 대비 분포율

		(단위: %)								
분류		~2세 수준	2세 수준	3세 수준	4세 수준	4~5세 수준	5세 수준	5~6세 수준	6세 수준	6~7세 수준
표현 어휘	일반 (n=12)	0.00	0.00	50.00 (6명)	8.33 (1명)	0.00	8.33 (1명)	0.00	33.33 (4명)	0.00
	장애 (n=9)	11.11 (1명)	22.22 (2명)	44.44 (4명)	11.11 (1명)	0.00	0.00	0.00	11.11 (1명)	0.00
구문 이해	일반 (n=12)	4세미만: 0.00			0.00	8.33 (1명)	33.33 (4명)	8.33 (1명)	33.33 (4명)	16.66 (2명)
	장애 (n=9)	4세미만: 11.11(1명)			22.22 (2명)	33.33 (3명)	11.11 (1명)	11.11 (1명)	0.00	11.11 (1명)

3.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간 표현어휘력 및 구문의미이해력 비교

<표 -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표현어휘력 검사 결과를 언어연령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아동 어머니들은 3세와 6세 수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2세와 3세 수준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어머니들의 문장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결과를 언어연령으로 환산해 본 결과, 일반아동 어머니들은 5세와 6세 수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들은 4~5세 수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총점 0점으로 4세 미만 수준의 수행을 보인 어머니도 있었다.

두 어머니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현어휘력과 ($U = 20.500, p < .05$) 구문의미이해력($U = 16.000, p < .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정 결과는 <표 - 6>과 같다.

<표 - 6> 집단에 따른 표현어휘력과 구문의미이해력의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분류	집단	중앙값	범위	U	Z	p
표현 어휘력	일반(n=12)	47.50	40~71	20.500	-2.383	.017*
	장애(n=9)	39.00	12~67			
구문의미 이해력	일반(n=12)	31.00	20~42	16.000	-2.707	.007**
	장애(n=9)	19.00	0~34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조음음운능력, 음운인식능력, 표현어휘력, 그리고 구문의미이해력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조음음운능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간 단어반응 자음정확도, 연결발화 자음정확도, 자발화 명료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취학전 아동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두 집단 중에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낸 집단이 조음음운장애 집단이라는 사실은 어머니의 낮은 조음음운능력이 아동의 조음음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수 있다. 이는 류현주 외(2008), 황상심·정옥란(2008)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연결발화 자음정확도와 자발화 명료도에서 더욱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 명료도는 일반적으로 4세 이상이면 100%에 도달하므로(김수진·신지영, 2007) 두 집단 어머니들의 명료도는 모두 4세 아동 이하의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어머니의 아동용 발음평가(APAC)에서 산출된 원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어머니들의 평균 점수가 모두 4세 이하 정도로 검사에 참여한 아동들의 평균 생활연령보다 더 낮았다. 어머니들의 주된 오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어반응 음운변동 분석 결과, 긴장음화를 가장 많이 나타냈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들이 평음/격음/경음의 구별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배소영 외(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더 낮은 자음정확도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오류 패턴을 보였는데, 이 또한 어머니의 조음음운능력과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이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음운인식능력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이 조음음운능력 관련 검사에서뿐 아니라 음운인식능력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음운인식 능력과 조음음운능력이 관련이 있음을 밝힌 아동 대상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고유경 · 김수진, 2010; 김유신 · 김유 · 안성우, 2009; 신지현, 2005). 두 집단 간에 음절, 초성-라임, 음절체-중성, 음소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음소 단위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음음운장애 아동 어머니들의 낮은 음운인식능력이 음운인식의 가장 높은 단위인 음소과제에서 더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표면수준에서 심층수준으로 발달해 나가는 일반적인 음운인식능력 발달 과정이 반영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집단의 어머니들 모두 음절 단위에서는 높은 수행을 보였으나 그 외 과제에서는 절반 이상의 어머니들이 50%이하의 수행을 보인 점은 두 집단 어머니들의 음운인식능력이 대부분 취학전 아동과 비슷한 수준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조음음운장애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간 표현어휘력 및 구문의미 이해력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표현어휘력과 구문의미이해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어머니 집단 간 표현어휘력과 구문의미이해력의 차이가 큰 것은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에 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소정 · 김영태 · 김영란(2009), 우현경 외(2009), 최현옥 · 황보명(2009), 황상심 · 정옥란(2008)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현어휘력 검사 결과 두 어머니 집단의 평균 차이가 크지만 두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취학전 아동인 4세 전만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명사를 답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는데, 이는 주변에서 익숙한 사물의 어휘부터 습득해가는 일반적인 어휘 습득 과정

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결과는 5세 전후만 사이의 점수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언어능력이 4~5세 수준에 해당한다고 한 최현옥 · 황보명(2009)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구문의미이해력 검사에서 최고한계선 범위 내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보인 문항은 의미에 초점을 맞춘 문항들이었는데 은유적 표현을 1차적 의미 그대로 해석하거나 난이도 높은 형용사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검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총 21명으로 모두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들이었는데, 베트남어의 경우, 한국어와 공통적인 자음은 /ㅃ,ㅆ,ㅈ/이고 /ㅂ,ㅍ,ㄱ,ㅋ/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음 /ㄹ/가 어말에서 발음되지 않는다(김선정 · 육효창, 2010). 따라서 베트남 어머니들이 긴장음화 오류를 많이 보이거나 중성 /ㄹ/의 생략을 많이 보인 이유는 이와 같은 모국어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베트남어는 어미의 변화가 없는 언어로 조사도 없고 수사 시제에 따른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베트남 어머니들이 자발화나 연결발화 따라말하기 과제를 수행할 때 조사를 많이 생략한 이유도 이러한 언어특성에서 기인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능력이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인 황상심 · 정옥란(200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모국어 특성이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출신국가 언어의 특징을 반영한 한국어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고 어머니의 국적을 베트남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다문화가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좀 더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련 변인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능력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시도되었다.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의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어머니 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유경·김수진(2010).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과 읽기능력의 비교 및 상관. 『언어척각장애연구』, 15(2), 157-167.
- 권미지(2011). 단어단위 측정에 의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음운 특성 분석. 『언어치료연구』, 20(4), 163-175.
- 김민정·배소영·박창일(2007). 『아동용 발음평가(APAC)』. 인천: 휴브알앤씨.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423-446.
- 김선정·육효창(2010). 다문화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나라사랑』, 119, 131-160.
- 김수진·신지영(2007). 『조음음운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영란·김영태(2011). 취학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73-88.
- 김영태·성태제·이은경(2004).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영태·신문자(2004).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 서울: 학지사.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애화(2007). 국내 음운인식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 검사 도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2), 139-167.
- 김유신·김유·안성우(2009). 음운인식 프로그램이 조음음운장애유아의 음운인식능력과 조음 오류개선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8(1), 99-116.
- 김희수·이은경(2010).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209-226.
- 류현주·김향희·김희수·신지철(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음성과학』, 15(3), 133-144.
- 박상희(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산출에 관한 종단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18(1), 89-97.
- 배소영·김근영·곽금주·김옥미(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및 심리발달 특성과 사회적응』. 춘천: 한림대학교.
- 배소영·임선숙·이지희·장혜성(2004). 『구문의미해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동 부.
- 서종남(2010).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103-128.
- 신지현(2005). 조음 및 음운장애 유아와 일반유아의 음운인식 능력 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원석(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소정·김영태·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이지연·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전효정·이귀옥·박혜원(2004). 초기 언어발달에 있어 환경적 영향의 특수성. 『아동학회지』, 25(5), 163-178.
- 최현욱·황보명(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행정안전부(2011).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서울: 동 부.
- 황상심·김희수(2008). 다문화환경 조음음운장애아동과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변동 패턴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329-348.
- 황상심·정옥란(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관련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Kovas, Y., Hayiou-Thomas, M. E., Oliver, B., Dale, P. S., Bishop, D. V., & Plomin, R. (2005). Genetic influences in different aspects of language development: The etiology of language skills in 4.5-year-old twins. *Child Development*, 76(3), 632-651.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2)을 요약한 것임.

<부록 - 1> 연구 참여 가정 설문조사 결과(명)

대상	항목	세부항목	장애 (n=9)	일반 (n=12)
어머니사항	연령대	20~30미만	3	7
		30~40미만	6	3
		40이상	0	2
	학력	초졸	1	1
		중졸	6	6
		고졸	1	3
		대졸	1	2
	거주년수	3년~5년미만	3	3
		5년~7년미만	3	3
		7년이상	3	6
	거주지역	경기도	5	5
		충청도	4	7
	한글 읽기	가능	9	12
		불가능	0	0
	아버지사항	연령	30~40미만	1
40~50미만			6	11
50이상			2	0
학력		초졸	1	0
		중졸	3	5
성별	남	5	5	
	여	4	7	
아동사항	출생순위	첫째	5	5
		둘째	4	6
		셋째	0	1
	교육기관 이용여부	예	1	2
		아니오	7	8
가정환경사항	소득	100미만	1	1
		100~200미만	6	5
		200~300미만	2	5
		300이상	0	1
	기타 가족 수	없음	6	7
		1명	2	2
		2명	1	3

ABSTRACT

A Comparis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 Multicultural Families between Mothers of Children with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and Mothers of Normal Children

Seung-Youn Cho^a · Eun-Ju Lee^{b,s}

^a Major in Language Therapy,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b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affects their children's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ability by compar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etween the group of mothers whose children have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and the group of mothers whose children are normal.

Methods: The study included 9 mothers whose children had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and 12 mothers whose children were normal. The children were between 3 and 4 years of age, and the mothers were the caregivers. The mothers were tested for expressive vocabulary, sentence comprehension,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ability, and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a Mann-Whitney U test was conducted.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ability, phonological awareness, sentence comprehension, and expressive vocabulary between the groups. However, the 2 groups showed the level of a preschooler in all tests. **Discussion & Conclusion:** This present study helps predict that low Korean proficiency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uld affect the developmen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ability of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414-423)

Key Words: moth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ability,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expressive vocabulary, sentence comprehension

^s Correspondence to

Prof. Eun-ju Lee,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126 Jukjeon-dong,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e-mail: slplee@dankook.ac.kr
tel.: +82 31 8005 3818

REFERENCES

- An, W. S. (2007). *A study on the expressive skill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Choi, H. W., & Hwang, B. M. (2009). An effects of mother's Korean abilities on their children's Korean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4), 315-329.
- Hwang, S. S., & Jeong, O. R. (2008). A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correlation of the children in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17(1), 81-102.
- Hwang, S. S., & Kim, W. S. (2008). A study on the phonological process patterns of children with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problem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gricultural area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4), 329-348.
- Jeon, H. J., Lee, K. O., & Park, H. W. (2004).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lu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5), 163-178.
- Kim, A. H. (2007). Review of phonological awareness assess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2), 139-167.
- Kim, M. J., Pae, S. Y., & Park, C. I. (2007). *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Incheon: Human Brain Research & Consulting.
- Kim, S. (2007).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arriage women immigrants. *Bilingual Research*, 33, 423-446.
- Kim, S. J., & Shin, J. Y. (2007). *Articulatory and phonological disorders*. Seoul: Sigmappress.
- Kim, S. J., & Yook, H. C. (2010). Korean pronunciation training for Korea learners of multicultural family. *Love of Country*, 119, 131-160.
- Kim, W. S., & Lee, E. K. (2010). A study on languag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preschool children in

■ Received July 20, 2012 ■ Final revision received September 5, 2012 ■ Accepted September 12, 2012.

© 2012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209-226.
- Kim, Y. R., & Kim, Y. T. (2011). Linguistic performance of Korean children from low SES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20(3), 73-88.
- Kim, Y. S., Kim, Y., & Ahn, S. W. (2009). The effects of an auditory phonological awareness training program on preschoolers with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18(1), 99-116.
- Kim, Y. T., & Shin, M. (2004).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Seoul: Hakjisa.
- Kim, Y. T., Hong, K. H., Kim, K. H., Ch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Kim, Y. T., Seong, T. J., & Lee, Y. K. (2003). *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Ko, Y. K., & Kim, S. J. (2010). A comparison of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ability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functional articulatory and phonological disord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5(2), 157-167.
- Kovas, Y., Hayiou-Thomas, M. E., Oliver, B., Dale, P. S., Bishop, D. V., & Plomin, R. (2005). Genetic influences in different aspects of language development: The etiology of language skills in 4.5-year-old twins. *Child Development*, 76(3), 632-651.
- Kwon, M. J. (2011). Phonological whole-word measures of multicultural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20(4), 163-175.
- Lee, J. Y., & Kwak, K. J. (2008).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SES) and home environment on the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1(3), 151-165.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Author.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1). *2011 Local government: Status of foreign residents*. Seoul: Author.
- Oh, S. J., Kim, Y. T., & Kim, Y. R. (2009). Preliminary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mily factor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pecial Education Research*, 8(1), 137-161.
- Pae, S., Kim, K. Y., Kwak, K. J., & Kim, O. M. (2009). *Linguistic-cognitive development and social adjustment of Korea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Chuncheon: Hallym National University.
- Pae, S., Lim, S. S., Lee, J. H., & Chang, H. S. (2004). *Test of 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Park, S. H. (2009). A longitudinal study of articulation production of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18(1), 89-97.
- Shin, J. H. (2005). *Comparison of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between general children and articulatorily and phonologically disabl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Suh, C. N. (2010). Research on the problems faced by families with immigrant spouses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2(1), 103-128.
- Woo, H. K., Juong, H. S., Choi, N. Y., Yi, S. H., & Lee, G. Y. (2009).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23-36.
- Yoo, H. J., Kim, H. H., Kim, H. S., & Shin, J. C. (2008). Articulation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15(3), 133-144.

* This paper was summarized from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2012).